

#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 유 미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 **Contributor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Preschool Children: Focused on Home Environment Factors and Maternal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Han, You M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ributor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preschool children focusing on home environmental factors(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nd maternal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child's effort, child's ability, teacher's instruction, and maternal teaching). One hundred and seventy three mothers whose preschool children were attending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Kyunggi-Do participated in the survey. Kinlaw et al.(2001)'s Importance of Effort/Ability Scale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belief about the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Stipek et al.(1992)'s Activities Sub-scales was revised to measure a social capital, that is the mother's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providing to their preschool child. Educational level was utilized as human capital and monthly income was considered as financial capital. Also, using open ended questions,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numbers of extra-curricula activities their child was presently attending, and when he or she began to attend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mothers provided informal activities to their preschool child more than formal activities. Also, they believed the teacher's instructi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child's ability the least important in their child's academic achievement.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as predicted by mothers' formal activities and their belief on their child's ability. The age of start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explained by mothers' formal activities and their educational level.

**Key words:**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home environment

## I. 서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과 더불어 유아기부터 학습 위주의 조기교육을 성행케 하는 원인이 되고, 무려 20조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통계청, 2008). 이와 같이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전인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양극화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혁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EBS 수능 과외,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수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2007년 대선 출마 각 당 후보들도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목고 제한, 영어공교육 실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임천순 등 2008).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영어몰입교육 실시(경향일보 2008.1.24)와 국제중학교 신설(한국일보 2008.8.4) 등이 발표됨으로 인하여 사교육 과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문제는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위신, 명예 등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구인회 200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학문과 이를 통한 출세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으로 인해 학력 외에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뿐 아니라 결혼이나 인간관계 형성 시 학력이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직업선택과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력주의가 더욱 더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집 자녀가 명문대나 사범고시 등에 합격한 경우를 말하는 ‘개천에 용’이란 표현과 같이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 보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관계지향적인 문화로 인해(Kim & Choi 1994) 자녀의 학업

성취는 결혼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많은 한국 주부들에게 일종의 대리성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관심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Teachman et al. 1997). 특히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에 투자 가능한 금액(물적 자본)을 결정하고, 지능지수 등의 유전(인적 자본)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Becker를 위시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Becker 1993; Becker & Thomes 1986; Brooks-Gunn & Duncan 1997; Mayer 1997; Yeung et al. 2002). 그러나 최근 Coleman(1988)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풍부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녀 및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정 밖에서 사용한다면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사회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해 있는 비실재물로서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과 관심, 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하며, 물적, 인적 자본보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은정 2007; 이정선 2001). 수 년 전에 유행하던 ‘자녀의 성적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경제력’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자녀의 성적은 엄마의 정보력(사회적 자본)과 아빠의 이해력(사회적 자본)과 할아버지의 경제력(물적 자본)’으로 바뀐 것 역시 물적 자본의 토대 위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행하는 투자가 주로 과외나 학원 등에 소요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김은정 2007).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를 매개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열망은 가정의 수입과 같은 물질 자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Keith et al., 1993; Entwisle & Alexander 1996), 자녀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학업 성취를 저해한다는 상반된 결과(Boike et al. 1978)도 존재한다.

한편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과 관심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업이나 사회성 등의 발달 영역 중 어느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자녀 자신과 환경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노력과 관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과보호, 지시, 통제, 성취압력을 많이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오정현·정태연 2006). 실제로 Kinlaw 등(2001)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 부모들은 선천적인 능력과 노력의 중요성을 거의 비슷하게 보는 반면 동양계 미국 부모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즉,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양계 부모들은 아동에게는 과제에 필요한 노력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수행의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Hess et al. 1987), 학생들 역시 성취는 지능보다는 성실성에 달려있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와 같이 수행을 일차적으로 노력의 함수라고 여기는 문화에서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며, 자녀의 성취를 강조할 수 있다(Okagaki & Divecha 1993).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일변지로 불리는 ‘강남 엄마들’의 자녀 학업지원활동 특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을 분석한 김경숙(2009)의 연구에서도 사교육에 의존하고 아이의 스케줄 관리에 전념하는 어머니들(매니저형, 모방형)은 자녀가 영재성이 없더라도 온순하고 성실하다면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재원에 등록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선행학습에 연연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철저히 지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성찰형, 적당형)은 자녀마다 타고난 능력이 따로 있어서 부모가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 문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노현경 2006; 양정호 2005; 이승신 2002; 이성림 2005)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실태 조사나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 비용의 지출 차이를 밝히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주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현상인 서구와 달리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 결정 요인으로서 부모의 수입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중·고등학교 시기뿐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과 오히려 최근 국제중 신설에 가장 많은 관심과 동요를 보이는 집단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사교육 실태를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물질, 인적 자본)과 교육사회학적 관점(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 과열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환경 요인과 자녀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을 파악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가정환경 요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3.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어머니 신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4. 사교육 실태, 가정환경 변인(물질, 인적, 사

회적 자본),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가정환경변인과 학업성취요인에 관한 신념은 사교육 실태를 얼마나 예측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어머니 173명이다. 유의표집으로 4개의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했으나 193부가 회수되었고(약 77%), 이 중에서 부실기재 질문지를 제외한 17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4.63세(범위 21~45세)였고, 학력은 대졸이 96명(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20.7%), 대학원 졸(8.7%), 전문대 졸(6.7%)의 순이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전업주부(46.7%)보다 취업모(53.3%)가 많았는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표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가족 소득은 평균 360만원(범위 80~1,700만원)이었다.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subjects

		N=173	
		F(%)	Mean(SD)
Age		21~45 <sup>a</sup>	34.63 (3.57)
	Education		
	high school	31 (20.7)	
	college	10 (6.7)	
	university	96 (64.0)	
	graduate school	13 (8.7)	
Occupation	unemployed	57 (46.7)	
	employed	65 (53.3)	
Income		800,000~	360.33
		17,000,000 <sup>a</sup>	(196.93)
Number of children	1	84	
	2	44	
	3	5	

<sup>a</sup> Range

## 2. 측정도구

### 1) 사교육 실태

본 연구에서 사교육 실태는 어린이집 외에 가정방문 학습지나 학원, 문화센터 등 사교육을 이용하기 시작한 연령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활동의 수로 정의했다. 사교육 활동 시작 시기와 현재의 사교육 활동 개수는 모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여 연속 변수로 처리했다.

### 2) 가정환경 변인

#### (1) 물질 자본

본 연구에서 물질 자본은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으로 정의하고, 개방적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2)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부모의 지능지수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으로 측정하였다.

####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 관심, 자녀학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형식적·비형식적 활동을 측정하는 Stipek 등(1992)의 Activities Sub-scales를 변형해서 사용했다. 원래 이 척도는 형식적 활동(예, 가게에서 샀거나 집에서 만든 플래시 카드나 학습지를 사용하여 글자나 읽기를 가르친다)과 비형식적 활동(예, 상차릴 때 식기류를 세게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맥락에서 수를 가르친다)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전혀 안함'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활동 빈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혀 안함'에서 '일주일에 6~7회'로 척도를 수정했다. 신뢰도  $\alpha$ 는 형식적 활동은 .80, 비형식적 활동은 .83이었다.

### 3)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자녀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유아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Kinlaw 등(2001)의 Importance of Effort/Ability Scale를 수정해서 사

용했다. 원래 이 척도는 유아의 읽기와 수학 학습에서 유아 자신의 노력과 능력, 교사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 등 네 가지 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및 특별활동 1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기와 수학 외에 영어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노력(예,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능력(예,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가), 교사의 가르침(예, 교사의 지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과 어머니의 가르침(예,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는가) 등 4가지 요인이 각기 수학(8문항), 읽기(8문항), 영어(8문항)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문항이 각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업성취 요인이 그 영역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alpha$ 는 요인별로 .86에서 .91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2인의 자문으로 일부 번역이 어색한 문장과 내용이 애매한 지시문 등을 수정한 후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측정도구의 문항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전달한 후 교사의 협조로 유아 편에 질문지를 배부, 수거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종속 t검증, 피험자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both factors) 및 Duncan 검증, Pearson 상관관계 및 Spearman 상관관계, Stepwise 회귀분석 등으로 처리했다.

## III. 연구결과

###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

<Table 2>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173명 과반수 어머니들이(98명, 56.5%) 해당 자녀에게 어린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N=173

	Mean(SD)	Min-Max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1.22 (1.30)	0-6
Age of begin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34.69 (16.76)	10-71

집 외에 문화센터나 가정방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평균 사교육 개수는 평균 1.22개, 최대값은 6개였다. 해당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평균 34.69개월, 최소값은 10개월이었다.

### 2. 가정환경 요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은 물질 자본(월소득), 인적 자본(부모의 학력), 사회적 자본(어머니의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했는데, 이중에서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의 일반적 경향은 연구대상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 경향만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3>과 같이 평균 형식적 활동은 2.84, 비형식적 활동은 3.40으로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형식적 활동보다 비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d=-.56$ ), 종속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8.15, p<.001$ ).

Table 3. Paired t-test of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N=173

	Mean(SD)	d	t
Formal activity	2.84 (.83)		
Informal activity	3.40 (.88)	-.56	-8.15***

\*\*\* $p<.001$

### 3. 교육신념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노력, 능력, 교사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 등의 학업성취 요인(4 수준)과 수학, 읽기, 영어 등의 학업영역(3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중요성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피험자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주효과가

Table 4.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both factors N=173

	SS	df	MS	F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68.49	3	22.83	73.30 *
Academic domain	.74	2	.37	1.18
Factors X Domain	.69	6	.11	.37
Error	624.14	2,004	.31	
Total	694.06	2,015	23.62	

\*p<.0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her's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N=173

		Academic domain			
		Math M (SD)	Reading M (SD)	English M (SD)	Total M (SD)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child's effort	3.42 (.04)	3.47 (.04)	3.38 (.04)	3.43 (.02) b
	child's ability	3.02 (.04)	3.05 (.04)	2.96 (.04)	3.01 (.02) c
	teacher's instruction	3.48 (.04)	3.47 (.04)	3.47 (.04)	3.47 (.02) a
	mother's teaching	3.40 (.04)	3.40 (.04)	3.39 (.05)	3.40 (.02) bc

발견되었으나 학업영역에 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학업성취 요인에 따라서는 교사의 가르침이 평균 3.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유아의 노력(3.43), 어머니의 가르침(3.40)이었으며, 유아의 능력이 평균 3.0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추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가르침(bc)은 유아의 노력(b)이나 유아의 능력(c)과 유의한 차이가 없고, 집단 간의 차이는 유아의 노력, 유아의 능력, 교사의 가르침 등 세 집단 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사교육 실태, 가정환경 변인,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간의 관계

<Table 6>은 사교육 개수 및 시작연령, 물질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들 간에 Pearson 상관관계 및 Spearman 상관관계(학력의 경우)를 구한 표이다. 분석 결과 월수입으로 측정된 물질 자본은 사교육 개수 및 시작 연령과 상관이 없었으며, 인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학력은 사교육 시작 연령과 부적 상관(r=-.30, p<.001)이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중에서 형식적 활동은 사교육 개수와 정적 상관(r=.29, p<.001), 비형식적 활동은 사교육 시작 연령과 부적 상관(r=-.40, p<.001)이 나타났다.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중에는 유아의 노력

Table 6. Correl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home environment and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N=173

		A	B	C	D	E	F	G	H	I	J	
Extra-curricular activities.	number(A)	1										
	beginning age(B)	.03	1									
Home environment	financial capital	monthly income(C)	.11	-.03	1							
	human capital	mother's education(D)	.14	-.30**	.33**	1						
		father's education(E)	.18	-.17	.33**	.52**	1					
	social capital	formal activity(F)	.29**	-.03	-.02	-.05	.00	1				
informal activity(G)		.02	-.40**	.06	-.02	.16	.46**	1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child's effort(H)		.18*	-.02	.03	.06	-.02	.10	.08	1		
		child's ability(I)	.24**	-.00	-.03	-.01	.15	.13	.09	.45**	1	
	teacher's instruction(J)		.09	-.10	-.01	.95	.08	.07	.12	.46**	.33**	1
		mother's teaching(K)	.08	-.12	-.01	.11	.06	.05	.08	.51**	.42**	.45**

<sup>a</sup> Spearman's rho, \*p<.05, \*\*p<.001

( $r=.18, p<.001$ )과 능력( $r=.24, p<.001$ )이 사교육 개수와 각기 유의한 상관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5.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예측력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의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노력, 능력, 교사 및 어머니의 가르침 등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 개수 및 시작연령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Durbin-Watson 계수는 각기 1.82와 1.83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자기상관 위험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Table 7>과 같이 사교육 개수에는 사회적 자본 중 어머니의 형식적 교육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beta=.25$ ), 그 다음은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중 유아의 능력( $\beta=.25$ )이었다. 이 두 독립변인은 모두 사교육 개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 개수 총 변량의 10%를 설명하고 있었다(Adjusted  $R^2=.10, p<.01$ ).

Table 7. Step-wise regression of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N=173

Model	b	beta	t	F	Adjusted $R^2$	$\Delta R^2$
1	Constant	-.08				
	Formal activity	.46	.27	2.55	6.51*	.06
2	Constant	-1.65				
	Formal activity	.43	.25	2.47	5.90**	.10
	Child's ability	.54	.23	2.23		.04

\* $p<.05$ , \*\* $p<.01$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교육 시작 연령의 경우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사회적 자본 중 어머니의 비형식적 교육활동이었다( $\beta=-.39$ ). 그 다음은 인적 자본 중 어머니의 학력이었으며( $\beta=-.34$ ), 이 두 변인이 사교육 시작 연령 총 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었다(Adjusted  $R^2=.23, p<.001$ ). 한편 사교육 시작 연령

에 대한 비형식적 활동과 어머니 학력의 영향력은 모두 부적으로, 자녀에게 비형식적인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하는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8. Step-wise regression of age of begin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N=173

Model	b	beta	t	F	Adjusted $R^2$	$\Delta R^2$
1	Constant	60.57				
	Informal activity	-7.70	-.38	-2.97	8.85**	.13
2	Constant	77.07				
	Informal activity	-7.86	-.39	-3.23	9.01***	.23
	Mother's education	-6.26	-.34	-2.83		.10

\*\* $p<.01$ , \*\*\* $p<.001$

IV. 논의 및 결론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대상 보육시설 유아 중 56%가 문화센터나 가정방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사교육 개수는 평균 1.22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우남희 등 1993; 이기숙 등 2001)보다 낮은 수치로, 거의 모든 취학전 아동이 다수의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며 전업주부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아동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를 문화센터 등에 데리고 다니거나 가정에 학습지 교사를 부르기가 어려운 취업모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사교육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교육이 최근에는 보육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보육시설 내에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가 보육시설에

서 경험하는 특별활동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교육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가정환경 변인의 일반적 경향

이와 같은 사교육 실태와 관련 있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월 평균 소득과 같은 물질 자본과 부모의 학력과 같은 인적 자원 등의 구조적인 변인 외에도 과정적 변인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 관심, 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이 지적된다(김은정 2007; 이정선 200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자녀에게 플래시 카드나 학습지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형식적 교육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비형식적 교육활동으로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형식적 교육활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기본적인 학업 기술과 고도의 구조화된 직접 교수법을 강조하는 발달에 부적합한 실제보다는 놀이의 맥락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입각한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Holloway et al. 1995; Huffman & Speer 2000). 그러나 동일한 척도를 미국의 유럽계 어머니와 재미 한국인 어머니에게 사용한 Song(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Song(2005) 연구의 어머니도 형식적 교육활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두 교육활동간의 차이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어머니들은 형식적 교육활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2배나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시아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며, 유아를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며, 형식적이고 직접적인 교수법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Huntsinger et al. 1998; Okagaki & Divecha 1993)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형식적 활동보다 비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어머니들에 비해 구조화되고 성인 중심의 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물질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의 가정환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질 자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사회적 자본과는 관계가 없었다. 인적 자본 역시 형식적 교육활동과 비형식적 교육활동 등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과 모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적거나 학력이 낮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덜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주로 중산층 이상에 국한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학업이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한유미 등 2009).

## 3. 학업성취에 대한 신념의 일반적 경향

다음으로 가정환경 변인 외에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교육과 직접적 관련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신념에 있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아래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읽기, 영어 등의 학업영역의 성취에 유아의 능력과 노력, 어머니와 교사의 가르침 등의 학업성취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업영역에 따라서는 어머니들의 신념은 차이가 없었고 학업성취 요인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학업성취에는 교사의 가르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유아의 노력이나 어머니의 가르침이며, 유아의 선천적인 능력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자녀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들의 인식은 선천적인 능력은 아동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성취 수준은 노력에 달려있다는 입장에서 인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럽계 미국 부모들은 선천적인 능력과 노력의 중요성을 거의 비슷하게 보는 반면 동양계 미국 부모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즉,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Kinlaw et al. 2001), 동양계 부모들은 아동에게는 과제에 필요한 노력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수행의 책임이 있다고 믿고(Hess et al. 1987), 학생들 역시 학업성취는 지능보다는 성실성에 달려있으므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Fung 1998; Kim & Park 2006). 또한 위 네 요인 중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백인 어머니들과 달리(Han et al. 2009),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보다는 교사의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업성취 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문화에 의해 상당 부분 형성됨을 시사한다.

#### 4.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예측력

사교육 수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 중 형식적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 요인에 대한 신념 중 유아의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구조화되고 성인중심의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할수록 자녀에게 사교육도 많이 시킴을 의미한다. 사교육 시작 연령은 사회적 자본 중 비형식적 교육활동과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고 있어 가정에서 비형식적인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 개입 등의 사회적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가정일수록 사교육을 일찍 그리고 많이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를 매개할 뿐 아니라(Keith et al. 1993; Entwisle & Alexander 1996) 사교육 시작 시기 및 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가정의 월 소득과 같은 물질 자본과 부모의 학력과 같은 인적 자본은 예상과 달리

사교육 개수나 시작 연령 등의 사교육 실태에 유의한 예측력이 없었다. 이는 가정의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보다 사회적 자본과 같은 과정적 변인이 사교육 실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시기 사교육의 상당부분이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실태로 사교육 개수나 사교육 시작 연령만을 다루었으며 사교육 비용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사교육 비용을 포함하여 연구했다면 물질 자본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정밀히 측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 가정의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관점과 이를 매개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부모의 교육신념을 중요시하는 심리학적 관점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아기 사교육 실태를 접근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중요성을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8년 1월 24일. "2010년부터 고교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 5-32.
- 김경숙(2009) 강남 학부모의 자녀 학업지원활동 특성 및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5), 134-162.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오정현·정태연(200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2), 43-54.
- 이성립(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정선(200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임천순·우명숙·채재은(2008) 사교육 수요 분석: 학습보충론과 미래투자론.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1-27.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 한국일보 2008년 8월 4일. “국제중 내년 개교 확정.”
- 한유미·Hokoda A·Song H(2008) 재미한국계 어머니들과 백인어머니들의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신념.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71-288.
- Becker G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s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S, Thoma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1-39.
- Boike MF, Gesten EL, Cowen E, Felner RD, Francis RR(1978) Relations between family background problems and school problems and competencies of young normal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15, 283-290.
- Brooks-Gunn J, Duncan G(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7(2), 55-71.
-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Entwisle DR, Alexander KL(1996) Family type and children's growth in reading and math over the primary gra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41-355.
- Fung G(1998) Meeting the instructional needs of Chinese American and Asian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and at-risk students. In VO Pang, LL Cheng(Eds.), *Struggling to Be Heard: The Umet Needs of Asian Pacific American Children* (pp. 197-220).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ess RD, Chih-Mei C, McDevitt TM(1987)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Comparisons am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 and Cauc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79-188.
- Holloway SD, Rambaud MF, Fuller B, Eggers-Pierola, C. (1995) What is appropriate practice at home and in childcare? Low-income mothers' views on preparing their children for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51-473.
- Huffman LR, Speer PW(2000). Academic performance among at-risk children: The rol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2), 167-184.
- Huntsinger C, Jose PE, Larson, SL(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747-756.
- Keith ZT, Keith P, Troutman GC, Bickely PG, Trivette PS, Singh K(1993) Does parental involvement affect eighth grade student achievement?: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data. *School Psychology Review* 22, 474-496.
- Kim U, Choi S(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M Greenfield, R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m U, Park Y(2006)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 292.
- Mayer SE(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kagaki L, Divecha, DJ(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binson JP(1999) The time-diary method: structure and use. In WE Pentland, AS Harvey, MP Lawton, MA McColl(Eds).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NY: Springer.
- Song H(2005) Educational beliefs and practices on Korean-and European-American mo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Thesis of San Diego State University.
- Teachman JD, Paasch K, Carver K(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Yeung WJ, Linver MR, Brooks-Gunn J(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